

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보도자료	보고서명	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특징 및 성과 분석
	문의	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(02-3771-0821, sohyun.kang@kcmi.re.kr)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(02-3771-0622, mkkim@kcmi.re.kr)

○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시장 참여가 빠르게 확대되었으나, 포트폴리오가 특정 국가와 상품에 편중되어 실질적인 위험 분산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

- 2020년 이후 해외투자 접근성 향상으로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가 급증하였으며, 특히 20·30대와 고액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외시장 참여가 확대
- 다만 해외주식 투자는 미국 시장에 사실상 집중되어 있고, 해외 ETP 역시 미국 지수 및 기술주, 레버리지·인버스 상품에 편중된 구조
- 보유 종목 수만 보면 외형상 분산투자처럼 보이지만,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소수 종목과 특정 상품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 변동성 노출이 확대

○ 분석기간(2020~2022년) 해외투자가 일부 투자자에게는 성과 개선 요인으로 작용했으나, 전반적으로 성과 격차가 확대되고 고위험 투자로 인한 손실이 두드러짐

- 국내외 자산을 모두 고려한 개인투자자의 평균 투자성과는 동기간 지수 수익률을 하회하였으며, 특히 거래비용을 반영할 경우 손실 투자자 비중이 이익을 기록한 투자자보다 크게 나타남
- 해외시장 투자자 가운데 분산 효과와 위험조정 성과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 투자자도 있지만,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기록한 투자자도 존재
- 특히 레버리지·인버스 ETP의 합산 누적수익률이 30% 이상의 손실을 보이는 등 고위험 해외 상장상품 투자에서 성과 부진이 뚜렷
- 하위 성과 그룹에서는 고위험 상품 중심의 잦은 매매와 집중 투자가 손실을 확대시킨 반면, 상위 성과 그룹에서는 동일한 특성이 투자성과에 일률적으로 부정적이지 않은 비대칭적 양상이 확인됨

○ 퇴직연금 등 장기·분산투자 목적의 계좌를 활용한 투자자일수록 성과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남

- IRP·ISA 등 장기투자 목적의 계좌를 통해 해외 주가지수 ETF 등 분산형 상품에 투자한 경우, 수익률 변동성이 낮고 성과가 상대적으로 양호
- 이는 해외투자 여부 자체보다 투자 방식과 상품 선택, 투자 기간이 성과를 좌우함을 시사

○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

- (1) 해외투자 확대를 단순한 투자 자유의 확대가 아니라, 개인투자자의 위험 노출 구조를 관리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
- (2) 레버리지·인버스 ETP 등 고위험 해외상품에 대해 상품 구조의 이해도, 공시의 충실성, 판매·권유 관행 전반을 점검하고 감독을 강화할 필요
- (3) 청년층·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확대하는 한편, 앱·플랫폼 기반의 위험 경고 및 적합성 안내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
- (4) 개인이 직접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기보다, 간접투자상품과 자문·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장기적이고 일관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시장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